

# 아나키즘의도덕적기초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아나키즘의도덕적기초  
1897

## 차례

|                |    |
|----------------|----|
| I . . . . .    | 3  |
| II . . . . .   | 6  |
| III . . . . .  | 10 |
| IV . . . . .   | 12 |
| V . . . . .    | 15 |
| VI . . . . .   | 18 |
| VII . . . . .  | 22 |
| VIII . . . . . | 26 |
| IX . . . . .   | 32 |

다는것을의미하고, 자신을주인보다낮은자리에있다고생각하는하렘의 노예와다름없다는것을의미한다. 원한다면그렇게행동하라. 그러나그런경우에사람들은그대를작고쓸모없는나약한인간으로여기고, 그런관점에따라그대를대할것임을미리알아야할것이다. 네안에서힘을보지못하면사람들은단지연민의대상으로그대를대할것이다.

이렇게그대자신이자신의능동적힘을무기력하게만든다면, 다른사람들을탓하지말라.

반대로강해져라. 불의의목격자가되고, 생활에서의불의든, 과학에서의거짓이든혹은누군가에게자행된고통이든그것을발견할때마다불의, 기만, 부당함에저항하라. 투쟁하라! 투쟁은생명이다. 생명이치열할수록투쟁은더뜨거워진다. 그때그대는살았다고말할수있으며, 그대는부패한늘에서무위도식하는수년간을위해이러한삶의몇시간을포기하지는않을것이다.

투쟁하라! 샘처럼솟는완전한생명의가능성을다른사람들에게주기위하여투쟁하라. 이투쟁에서그대는어떤다른무대에도존재하지않는거대한기쁨을얻게될것임을믿으라.”

이것이도덕에대한과학이그대에게말할수있는것이다. 선택은그대의손에달려있다.

예술의즐거움에는도달할수도없고, 그런고상한즐거움을경험하지도못하고삶을끝내기때문이다.

우리는아직평등의원리를관철시키지못하고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우리는이조건들과타협하고싶지않다. 우리는그것에본노한다. 그것은우리를탄압하여혁명가로만들고있다. 우리가대항하여싸우는것들과화해할수없다. 오히려우리는화해를거부하고이조건들과최후까지투쟁할것을맹세한다.

이것은이미타협이아니다. 확고한신념을가진사람에게는타협이필요없다. 타협은모든것이저절로해결될때까지편안히잠들게할뿐이다.

드디어우리는논문의결말에이르렀다.

도덕성에대한개념이급격히변화하는시대가있다고이미언급하였다. 도덕적이라고생각되던것들이본질상극도로비도덕적이될수있다는것은분명하다. 이경우에해당하는것은기원자체가비도덕적이지만존중받는전통과풍속이다. 다른경우는단지한계급의이해를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도덕이다.

이모든것을우리는‘도덕을타도하라’고외치며던져버리고, 비도덕적행동의실현을자신의의무로여기시작한다.

우리는그러한시대를환영한다. 그것은비판의시대다. 비판은사회에서진지한사유의작업이일어나고있으며, 높은차원의도덕성이생기고있다는가장참된징후가된다.

이도덕이어떤형태를취하게될것인가? 우리는인간과동물에대한연구를토대로그것을표현하려고노력한다. 우리는대중과개별사상가들에게서태동하고있는도덕사상의운곽을이미보았다. 이도덕은강제적성격을갖지않을것이다. 종교, 법, 정부의도움으로인간을복제물로만들기를거부하는것처럼, 이도덕은인간을추상적사상을가진복제물로만들기를단호히거부한다. 이도덕은개인에게완전하고절대적인자유를부여한다. 이도덕은단순한사실확인이상의것은아니지만, 결국은과학으로변화할것이다. 이과학은인간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그대가그대안에충분한힘을느끼지않는다면, 그대가선명한감동없이, 큰기쁨없이, 그러나큰고통도없이, 평범하고단조로운삶의유지를위해필요한만큼의힘만을갖고있다면, 그대는정의로운평등의단순한원리를따라라.

평등의조건에서적어도그대는자신의힘에상응하는행복의최대치를발견할것이다.

그러나그대안에서젊은열정이말한다면, 그대가넘쳐나는충만한삶을살고즐기기원한다면, 즉살아있는존재가꿈꿀수있는최고의행복을인식하기를원한다면, 모든행동에서강해지고, 정력적이되어야라.

주위에생명을확산시켜라. 기억하라. 거짓을말하고, 사기를치고, 교활하게행동하고, 음모를꾸미는것은자신의나약함을일찌감치인정한

## I

인류의사상사思想史는시계추의진동을연상시킨다. 이진동의주기는수세기에이른다. 긴수면睡眠의시기가지나면각성의계기가찾아온다. 그때사상은정부, 교회, 법등모든이해당사자들이채운정교한축쇄로부터해방되어그들을물리친다. 사상은자신을가르쳤던모든것을엄격히비판한다. 사상은종교적, 정치적, 법률적그리고사회적편견들의품에서성장했지만, 그런편견들을폭로한다. 사상은새로운모색을위해미지의길로나아가고, 기대하지않은발견을통해우리의인식을풍요롭게하고새로운과학을창조한다.

그러나사상의뿌리깊은적들인정부, 법, 종교는곧패배에서회복한다. 그들은조금씩흩어진세력을결집하고, 자신들의민음, 법을해방시키고, 새로운요구에맞게적응시킨다. 자신들이배양한노예적순종을이용하고, 일시적인사회혼란을이용하고, 안정에대한열망과부에대한욕망그리고기만적인희망을특히, 이기만적희망을악용한다. 그들은다시조금씩자신들의과업에착수하여우선어린이의교육을장악한다.

어린이의이성은아주나약해서쉽게공포에순종하도록길여진다. 그들은바로이것을이용한다. 그들은어린이들에게두려움을심어주고, 그다음에는지옥의고통에대해야기해준다. 또한, 지옥에서영혼이수난당하는장면을그들에게보여준다. 다음단계에서그들은어린이들에게혁명의무서움에대해말하고, 혁명의특수하고극단적인사례를악용하여어린이들을‘체제의친구’로만든다. 성직자는어린이들에게법사상을가르쳐신의법에쉽게복종하게만든다. 법률가는어린이가시민법에복종하게만들기위해신의법에대해말할것이다. 이렇게미래세대의생각은종교적혼적을갖게된다. 동시에이것은사유에나타난절대주의와노예제도의흔적이기도하다. 왜냐하면절대주의와노예제도는손에손을잡고굴종의습관을지향하기때문이다. 동시대인들속에서이굴종의습관을연구할기회는충분히많다. 도덕의문제는종교적관습과법적위선으로슬쩍대체된다. 비판은실종된다. 모두가관습과무관심의힘에굴복한다. 열렬한신봉자들은기존의도덕률을비판도옹호도하지않는다. 각자는겉으로만, 힘닿는대로자신의행동들도덕률이설교하는것에일치시키려고노력한다. 사회의도덕적수준은점점낮아진다. 그렇게해서타락한로마의윤리, 구제도의윤리, 자본주의체제의종말을특징짓는도덕에이르게된다.

인간의선하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독립적인모든것은조금씩무디어지고, 오랫동안사용하지않고방치된칼처럼녹슨다. 거짓은덕행이, 속물근성은의무가된다. 부를획득하는것, 쾌락의순간을찾는것, 지혜와감정과에너지의보고를멋대로탕진하는것, 이모든것은부유한계급의슬로건이될뿐만아니라, 부르주아처럼보이는것을이상으로삼는대다수가난

한자들의슬로건이된다. 그때부유한계급, 재판관, 성직자와같은지배계급의타락은분노를일으키게되고, 시계추가반대방향으로운동하기시작하는계기를제공한다.

젊은이들은조금씩해방되어모든편견을던져버린다. 우선개인적으로다시비판이시작되고, 사유가넘치게된다. 각성이논에뜨이지않게대중을사로잡는다. 압력이발생하고, 혁명이폭발한다.

그때마다윤리의문제가무대로돌아온다. “왜나는이위선적도덕원리를따라야하는가?”이런질문이종교적공포에서해방된머리에떠오른다. “어떤것이든도덕은왜의무적인것이되는가?”

그때이도덕적감정을명료하게이해하려는시도가나타난다. 도덕적감정의본질을설명할수는없지만, 우리는매번그것과부딪친다. 그에대한설명=그것을인간본성의특권으로생각하지않을때, 본질을이해하기위해낮은단계의동물과식물을연구할때, 비로소가능해질것이다. 현대과학의논거와일치하는설명을찾기위한노력은계속된다.

이런논의가필요한가? 일상적도덕의토대, 더정확히말해서, 도덕을대체한위선의토대를더많이허물수록사회의도덕적수준은더향상된다. 도덕감정이비판을받고전면적으로부정되는그시기에, 도덕감정은가장빠르고성공적인발전을이룬다. 즉그때야그것은고양되어, 자라고완성된다.

이에대한예를 18 세기에서찾을수있다. 맨더빌 (B.Mandeville) 은 이미 1723 년 『꿀벌의우화』와그에대한자신의주해로영국에서스캔들을일으켰다. 그는도덕이란미명아래횡행하는사회적위선을공개적으로공격하였다. 그는소위일상적관습의도덕성이란것은위선의가면일뿐이며, 일상도덕률의억압을받는욕망은제한을가하면가할수록반대로더욱더치명적인경향을갖는다는것을증명하였다. 푸리에 (F.Fourier) 처럼, 그는욕망이무수한악덕으로변형되지않도록욕망의발현에완전한해방을부여할것을요구하였다. 그는동물학에대한지식이동시대에부족했음을제대로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인류의도덕사상이이문제에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 즉부모세대와지배계급의목인에서비롯되었음을밝혔다. 스코틀랜드의철학자들과백과전서파가도덕사상을열렬히비판했던것은모두가알고있다. 1793 년의아나키스트들도알려져있다. 법률학자, 애국주의자, 자코뱅주의자들은강제의원리와절대자의도덕적승인을찬양한다. 그러나기오 (M.-J.Guyau) 와유사하게무신론자-에베르 (Hébert) 파혁명당원<sup>1</sup>들은강제와도덕의승인을부정한다. 이들중에서어느쪽이더발전된도덕감정을주장하는지모두가알고있다.

<sup>1</sup> 역주 - Hebertiste. 프랑스혁명에서반기독교주의, 지롱드파와온건파의근절을요구했던에베르 (Jacques-René Hébert) 의추종자들.

일반적으로이기주의적감정과이타적인감정의허구적대립위에자신의시스템을세웠던도덕론자들은잘못된길로빠졌다. 이대립이실제로존재했다면, 개인의행복이실제로류類의행복과대립했다면인류의생존은불가능했으며, 어떤종류의동물도현재의발전단계에이를수없었을것이다. 각각의개미가개미총의평안을위해일하면서큰만족을경험하지않는다면, 개미의생존은불가능하고, 개미는지금의모습과는달라졌을것이다. 즉, 곤충의세계에서가장높은단계의발전을이룩한생물, 확대경으로간신히볼수있는작은뇌임에도불구하고평균적인간과같은정도의능력을부여받은생물이되지못했을것이다. 새들이계절적인이동, 새끼들을위한수고와맹수를방어하기위한공동협력에큰만족을얻지않았다면, 현재의발전단계에이르지못했을것이다. 조류는진보하는대신퇴보했을것이다.

개인의행복이류類의행복과일치하는때가올것이라고말할때스펜서는한가지를잊고있다. **모든시기에두가지이해관계가 동일하지않았다면**, 동물세계의진화는불가능했을것이다. 그렇다. 모든시기에, 동물의세계에서처럼인류사회에서도, 대부분의개체는개체와그것의전체인류의행복은본질상동일하다는것을이해하지못했다. 생명력의강화가개체의삶의주목적이기때문에, 개체는최대의사회성숙에서그리고고유의‘나’와주변의모든존재들과의최대의동일성속에서, 생명력의강화를모색한다. 그러나대부분의개체는그러한사실을이해하지못했다.

이성과이해력의부족이이러한결과를낳았다. 어떤시대에든현명하지못하고무지한사람들이존재했다. 그러나역사심지어지리학의어떤시대에서도개체의행복이사회의행복과대립한적은없었다. 이들은언제나같았고, 이것을누구보다잘이해할수있었던자들이더완전한삶을누릴가능성을가질수있었다.

우리의관점에서, 이기주의와이타주의의대립은비합리적이다. 바로이때문에우리는, 이기주의적감정과이타주의적감정사이에서동요하는사람들이 - 공리주의자들의입장을받아들일때 - 끊임없이저지르는타협에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았다. 확신을가진사람에게그런타협은없다.

실제로그런일이일어나고있다. 동시대현실의조건에서평등의원리에따라삶을건설하려고할때, 우리는매걸음평등원리가유린되고있음을느낀다.

우리의식사와거주지가아무리초라하다해도, 다리밑에서잠자리를찾거나마른빵조각도없이고생하는사람들과비교할때우리는로스차일드 (N.M.Rothschild) 라할수있다. 우리가지적인, 예술적인유산을아무리적게물려받았다해도, 육체노동에서달리는수백만의사람들과비교할때, 우리는로스차일드라할수있다. 대부분의육체노동자들은학문과

## IX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해서 몇 마디 할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영국 학파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낯가에 웅 웅 거리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아직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국 도덕론자들이 구별하려고 했던 두 개념의 차이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말할 때 우리는 이기주의 혹은 이타주의를 설교하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는 “개인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의 안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 위에 건설된 사회에서도 당신은 일정 기간 상대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복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것은 지속될 수 없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그 행복은 붕괴될 수 있다.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행복과 비교할 때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동선을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타주의 혹은 이기주의를 설교하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오의 금언을 풀어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충만하고 완전하며 결실이 풍성한 삶이 주는 쾌락을 귀중히 여긴다면, 강하고 당당해지시오. 모든 행동에서 힘과 당당함을 보이시오. 삶을 모든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시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더욱 호감가는, 사회성이 강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시오. 폭넓게 성숙한 이성을 따르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하시오. 모험 속에는 고유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힘이 있는 동안 그대가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힘을 바치시오. 그때 그대는 가능한 행복의 총체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요. 대중과 하나가 되시오. 그때 삶 속에서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대가 존중하는 이의 마음이 당신을 **옹호**하고, 그대가 경멸하는 모든 이의 마음이 그대를 **반대**하는 것을 느낄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설교하는가? 이타주의인가 아니면 이기주의인가?

투쟁하는 것, 위험에 맞서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양이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우리를 분호하게 만드는 불의를 끝내기 위해 굶주림까지도 감수하는 것,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반대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약한 철학자에게는 희생일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힘, 용기, 젊음으로 충만한 남녀에게 존재의 모든 기쁨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기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

“왜 나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12 세기의 합리주의자들, 16 세기 철학자들, 18 세기의 사상가와 혁명가들이 제기한 질문이다.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인 벤담 (J.Bentham) 과 밀 (J.S.Mill), 뷔히너 (L.Büchner) 와 같은 독일의 유물론자들, 1860-70 년대의 러시아 니힐리스트들, 아나키즘 윤리 그리고 사회 도덕에 대한 학문의 젊은 창시자였지만 불행히도 요절한 기오도 다시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 아나키스트들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그럴까?

30 년 전 러시아 젊은이들도 이 문제에 몰두하였다. “어떤 경우 에나 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나는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왜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가? 성서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나 성서란 것은 바빌론과 유대인의 신화 오음집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바스크족의 서사시 혹은 몽골의 전설과 같이 구성된 전통이다! 나는 동방의 반야만족들의 지적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칸트 (I.Kant) 가 정언적 명령에 대해, 내 ‘자아’의 심연에서 발생한 비밀스런 명령에 대해 말하면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에, 나는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그러나 때때로 내게 술에 흠뻑 취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명령보다 이 ‘정언적 명령’은 내 행위에 대해 왜 더 많은 권한을 갖는가? 모든 일은 단지 **말**에 있다. 단지 말뿐이다! 이것은 섭리 혹은 운명, 즉 우리의 무지를 감추기 위해 고안된 말과 완전히 같지 않은가! 벤담은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를 구하느라 자신이 물에 빠지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벤담을 만족시키기 위해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혹은 다른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인가? 내 어머니가 내게 도덕을 가르쳤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나는 십자군 상 혹은 성모상 앞에 엎죽 엎드리고, 왕 혹은 황제를 존경하고, 내가 사기꾼이라 여기는 재판관에게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단지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주 선량하지만 아주 무지하며, 우리에게 온갖 어리석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모든 다른 것들처럼 편견일 뿐이며, 나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어린 시절 공포를 일으키던 어둠, 무덤, 환영과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내 의지에 반하여 내가 비도덕적이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나 자신을 강제할 것이다. 나는 종교가 사용하는 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위선에 대항하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위선은 말을 수단으로 우리를 강제하고, 사람들은 말을 수단으로 도덕에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다.”

구시대의편견과결별하고니힐리즘 (허무주의)<sup>2</sup> 혹은, 더진실하게 말하면, 아나키즘철학의깃발을올릴당시에, 러시아젊은이들은다음과 같이생각하고있었다. “아무리높은것이라도어떤권위에도굴복하지말 것, 이성에의해검증될때까지는어떤원리도추종하지말것.”

도덕에대한아버지들의가르침을쓰레기통에던져버리고모든도덕체 계를태워버린후, 젊은니힐리스트들은도덕 **행위**의싸움, 즉복음, ‘양심’, ‘정언명령’혹은공리주의의‘이성적으로이해된이익’의비호아래아버지 들이실천했던모든것보다무한히고귀한싸움을자신속에키웠다.

그러나무엇보다도다음과같은질문에답해야한다. “왜나는도덕적이 어야하는가?”그러나우리는질문자체가올바르게제기되었는지고찰하 고, 인간행위의동기를분석하고자한다.

## II

어떤자극이인간으로하여금이러저러하게행동하도록만드는가를명 료하게하기원할때, 우리조상들은아주간단하게결론에도달하곤하였 다. 조상들이이문제를설명하는수단을묘사한가톨릭성화가지금도남아 있다.

한사람이들판을걸어간다. 그는왼쪽어깨에는악마가오른쪽어깨에 는천사가앉아있다는것을모른다. 악마는악행을행하는쪽으로그를밀치 고, 천사는그렇게하지않도록그를붙든다.

천사가우위를점하고그사람이선량함을유지하면, 다른세천사가손 으로잡아그를하늘로데려간다. 그렇게모든것은성화에그려진대로설명 된다.

이런점을아주잘알고있는우리늙은유모들은아기를침대에누일때, 쪽웃기의단추를풀어야한다고말한다. 수호천사가머물수있도록얼굴바 로아래쪽따뜻한장소를열어두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잠잘때악마가아 이를괴롭힐것이라는것이다.

이런순진한생각은사라졌다. 그러나늙은용어들이더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해도본질은여전히그대로남아있다.

계몽된사람들은더이상악마를믿지않는다. 그러나그들의생각은우 리늙은유모들의미신보다더이성적이지않다. 그들은현학적수사로악마 와천사를은폐하고, 그것에철학이란이름으로경의를표한다. 그들은위 선적이다. 그들은이제‘악마’대신에‘욕망의육체’를말한다. ‘천사’는‘양

반응은필연적이고유익하기도하다. 우리의입장에선그런오물로뒀인‘이 상’이란단어를새로운사상에더적합한다른단어로바꾸고싶기도하다.

그러나우리가어떤단어를사용하든지, 사실자체는그자리에남아있 다. 즉모든사람은이상을갖고있다. ‘불과칼’이라고표현해서몹시괴하 지만, 비스마르크에게도그가가진이상이었다. 부르주아의이상은감베 타 (Gambetta) 의순금육조와요리사그리고많은노예들이다. 여기서노 예는순금육조와요리사비용을마련하기위해꼭필요한것이다.

그러나그들과나란히더높은이상을가진사람들이존재한다. 더이상 그들은순수하게동물적인존재양식으로만족하지않는다. 그들은노예상 태, 거짓, 정직성의결핍, 인간관계에서의음모에대해분노한다. 어떻게 그들이거짓말쟁이, 노예, 폭군, 박해자가될수있단말인가! 인간들사이 에더좋은관계가수립된다면, 삶은훨씬더아름다워질것이란것을그들은 알고있다. 길에서만나는사람들과매번더좋은관계를수립하기위해필요 한힘이자신에게있음을그들은느끼고있다. 그들은이상이라불리는것을 성취할것이다.

이런이상은어디에서오는가? 이상은어떤방식으로형성되는가? 유 전을통해서인가, 생활에서받은인상에의해서인가? 이에대해서우리는 아는것이없다. 우리는이상의발전에대한어느정도옳은이야기를각자의 전기傳記에기록할수있을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상은현존한다. 이상은변하고진보하며외적인 영향에굴복하기도하지만, 그래도늘살아난다. 이것은우리에게가장 큰생명력과삶의기쁨을주는것에대한무의식적느낌이다. 그러한개념의 이상에답할때에만, 삶은건강하고, 풍성한결실을맺고, 풍요한감정이될 것이다. 이개념과반대로행동해보라. 그러면당신은삶의분열을느낄것 이다. 삶은완전성을잃고, 힘을상실하게될것이다. 즉시당신은언젠가갖 고있던힘과결정의직접성을상실하고말것이다. 당신은분열된존재가될 것이다.

인간은독자적으로작용하는신경과뇌조직들로이루어진복잡한존재 다. 인간을그렇게생각한다면, 여기에는아무런비밀스러운것도없다. 시 험삼아당신내부에서투쟁하는다양한감정들사이에서동요해보라. 그러 면당신자신의유기체의균형은파괴되어, 당신은의지를상실한병든인간 으로바뀌고말것이다. 삶의치열함은줄어들고당신은무익하게타협을찾 게될것이다. 당신은이성의현실적판단과행동이완전히일치했던인간, 그때의완전하고강하며건강한인간이더이상아닐것이다.

<sup>2</sup> nihilism. 기존의가치, 이상, 도덕규범, 문화, 국가를부정하는사상적경향으로, 러시아작가인투르게네프의소설『아버지와아들』에서처음사용되었다. 기존의가치를부 정한다는점에서니힐리즘과아나키즘사이에는공통점이있다. 니힐리즘을따르는사람들 을니힐리스트라한다.

이웃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그것은 단지 귀족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단지 원리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인간은 이웃을 도우려는, 인류진보의 거대하고 힘겨운 운동에 기여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은 이 과제에 열중한다.” 고 기오는 말한다. 보편적 사업에 기여하려는 욕구는 매우 커서, 우리는 모든 사회적 동물에게서, 심지어는 가장 낮은 발전 단계에 있는 동물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결실 없이 낭비되고 있는 이 열광적 활동은 무엇일까?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힘을 실으려는 욕구 혹은 모두의 합창에 참여하려는 욕구와 다른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감정이 빈곤하고 창조적 능력이 부족할 때, ‘풍부한 의지’와 활동에 대한 열망은 나폴레옹 1 세 혹은 비스마르크 같이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광인들을 탄생시킨다. 다른 한편 풍성하지만 성숙한 동정심이 결여된 사유는, 과학의 진보를 억제하기만 하는 학자들의 경우처럼, 건조한 결실을 맺는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감정은 거친 짐승 같은 자를 위해 희생하려는, 즉 그에게 모든 사랑을 바치는 여성들을 만들어낸다.

정말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삶 속에 이성, 감정, 의지가 동시에 풍부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이 다면적 결실은 **삶 그 자체**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런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삶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의 한순간을 얻기 위해 수년간의 무기력한 생활을 포기한다.

이러한 삶의 생생한 샘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속한 노인, 쓸모 없는 인간, 개화하지 못한 채시들고 마는 식물일 뿐이다.

“생명이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생명은 시들어가는 이 세대에 (시대의 종언) 주어져 버렸다.” 라고 생명으로 충만한 젊은이들, 살기 원하고 주위에 생명의 씨를 뿌리려는 젊은이들은 외친다. 언제든지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면, 일치 단결하여 돌진하는 젊은 세대가 낡은 경제, 정치, 도덕적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을 심는다. 뛰어난 개인들이 투쟁에서 죽는다는 것은 큰 불행일 것이다! 그러나 삶의 맥박은 계속된다. 생명은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죽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들이 그를 위협한다고 해도, 산다는 것은 개화를 의미하였다. 그는 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영웅적 시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일상적 삶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 우리의 이상과 반대로 진행되는 삶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의 동시대인들은 이상에 대해 심쩍은 투로 말하곤 한다.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아주 빈번히 사람들은 이상을 불교와 기독교적이 단과 섞어버렸고, 순진한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 이상을 유포시켰다. 때문에 그런

심'과 '영혼' 혹은 프리메이슨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 혹은 위대한 조물주의 기획의 반영' 이란 말들로 대체된다. 그러나 인간들의 행위는 전혀럼 두적 대적인 요소들 사이의 투쟁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영혼 혹은 양심 이 육체 혹은 욕망보다 우세할 때, 인간은 여전히 선하다고 인정된다.

영국 철학자들 그리고 후에 백과전서파는 악마와 천사는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련 없으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좋거나 나쁘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하는 쾌락의 추구라는 한 가지 동기에서만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시적 개념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꽤나 놀랐으리란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온갖 종교 단체들과 수많은 바리새이파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비도덕적이라고 성토했다. 사상가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그들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급세기에 벤담, 존스 투어트밀, 체르니셴스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상으로 돌아갔고, 사상가들은 에고이즘 혹은 쾌락의 추구가 모든 행위의 동기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였다. 그러자 훨씬 더 강력한 저주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보다 더 정의로운 것이 있을까?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어린아이의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빼앗는다. 그는 무지막지한 이기주의자이며, 전적으로 이기주의의 지배를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다. 모두가 그를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배고픈 사람과 나눈다. 그는 자기 옷을 벗어 헐벗은 사람에게 준다. 늘 종교 용어를 사용하는 도덕주의자들은, 그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정도로 이웃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를 지배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아무 관계 없는 감정이라고 서둘러 선언한다.

그런데 조금만 신중히 생각하면, 두 행동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쾌락의 추구라는 행위의 **동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이 즉시 분명해진다. 자신의 마지막 옷을 내어주는 사람이 그 행위에서 쾌락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빵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행동을 싫어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는 베풀 뿐이다.

이미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새로운 의미로 사용할 때 개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혼동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기주의가 모든 인간 행동을 위한 자극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두 행동이 서로 다른 동기의 지배를 받는다는 망상과 신화를 깨뜨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사상을 더 섬세하게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기는 하나다. 그것은 쾌락의 추구가거나, 결국 같은 말이지만,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이다.

3 만 5 천의파리주민을학살한티에르 (L.-A.Thiers) 같은악인을예로들어보자. 음란한생활을위해온가족을살해한살인자가있다고하자. 그순간에명예욕혹은돈욕심이다른열망보다우세했기때문에그들은그렇게행한다. 그순간에불쌍히여기는마음, 나아가동정심은다른감정, 다른욕망에의해완전히압도당한다. **자기본성의욕구들중하나를충족시키기위해서**그들은거의자동기계처럼행동한다.

거창한욕심은제쳐두고천박한인간을예로들어보자. 아니면허풍으로혹은피를부려친구들을속이고, 술값을뜯어내기위해틈만나면거짓말을하는사람이있다. 아내혹은정부에게다이아몬드를사주기위해노동자의푼돈을도둑질하는부르주아가있다고하자. 자잘한사기꾼을예로들수도있다. 그도또한자신의성벽에복종할뿐이다. 그는욕구의만족을추구하고, 자신에게고통을야기하는것을피하려고한다.

마치러시아의니힐리스트들처럼억압받는자들을해방하기위하여자신의생명을희생하고교수대로향하는영웅들과와같은자잘한사기꾼을비교하는것이불편한느낌을줄수도있다. 전자는아주매력적이고, 후자는혐오스럽다. 그렇다면순교자를, 지금교수대앞에선한여인을생각해보자. 그녀는이순간교수대에오를준비가되어있으며, 자신의생명을, 박해받은동물의생명을, 심지어자신의죽음을노동자에게서훔친돈으로살고있는자잘한사기꾼의생명과바꾸지않겠다고말한다. 그녀는자신의삶속에서, 강력한괴물과의투쟁속에서 **자신을위한최고의쾌락을발견**한다.

그녀는이투쟁의틀에서벗어난것을, 부르주아적삶의지엽적인기쁨과비에를빈한하고가없는것으로여긴다. 즉“당신들은사는것이아니고, 무위도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나는살았습니다!”라고그녀는당신들에게대답할것이다.

당연히지금우리는인간의의도된, 의식적행위에대해말하고있다. 우리삶의대부분을채우는많은양의무의식적, 거의기계적인행위에대해서는나중에언급할것이다. 그렇게의식적이고이성적인행위에서언제나인간은쾌락을제공하는것을얻으려는열망의지배를받는다.

어떤사람은동물과같은지경에이를때까지매일술을마신다. 자신의신경시스템에서얻을수없는신경의각성을술속에서찾기때문이다. 또어떤사람은술이만족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술을마시지않고거절한다. 왜냐하면술보다더선호하는다른기쁨을즐기기를원하기때문이다. 그의행동은미식가가 - 화려한음식메뉴를훑어본후 - 더좋아하는다른음식을실컷먹기위해서좋아하는음식을거절하는것과같지않을까?

어떤일을하든지인간은언제나쾌락을추구하거나고통을피하려고한다.

어떤부인이적선하기위해마지막빵조각을먹지않고, 추위에떠는여자에게자신의마지막옷을벗어주고자신은배갑판위에서추위에떨다. 이

서신비주의를제거하면다음과같은올바른결론이도출된다. 즉 **생명은확산될때에만보존된다.**

“식물은꽃을피우지않을수없다. 때로개화는죽음을초래한다. 이얼마나큰불행인가! 그러나생명의정수는전진운동을계속한다.”라고젊은아나키스트철학자는말한다. 힘과에너지로충만할때, 그와동일한현상이인간에게서도일어난다. 그의내부에힘이어느정도축적되면, 그는자기생명의잉여분을덜어준다. 그는계산하지않고그것을내준다. 그렇지않는다면그는살수없다. 개화하는꽃처럼죽을운명이라면, 어차피마찬가지아닌가? 생명이과거에는그의내부에만있었지만, 이제생명은계속해서흘러넘친다.

강해지도록하라. 그대의열정과자성의에너지가용솟을치게하라. 그때그대는다른사람들에게이성, 사랑, 활력을나누어줄수있을것이다. 바로이것도덕에대한위선과동양적금욕주의를씻어낸가르침이전체적으로도달하는결론이다.

반대급부를바라지않고자신의이성, 감정, 활력을나누어주도록자극하는인간의힘, 삶의에너지의잉여, 바로이것이참된도덕적개인과외관계에서희열을불러일으킨다.

강력한이성의인간속에서는지적생명력이샘처럼솟아오르고, 그는생명력이자연스럽게넘쳐흐를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다른사람들과자신의생각을나눌수없다면, 그런사유는그에게아무런만족도제공하지않는다. 사상적으로빈곤한사람만이어렵게얻은생각을, 그결과를자기의이름으로도장쥌듯적어내기위해힘들여은폐한다. 큰지성을소유한사람의경우에생각은샘처럼솟는다. 즉그는이쪽저쪽모두아끼지않고나누어준다. 자신의생각을함께나누고, 그것을모든방향으로확산시킬수없는경우, 그는고통스러워한다. 그의경우에는여기에모든생명이있다.

감정의영역에서도그런현상이발생한다. 우리는우리자신에대해서만만족할수는없다. 즉“우리의눈물은내고통에필요한것보다훨씬더많다. 우리는존재가인정한것보다더많은기쁨을보유하고있다.”기오는도덕의모든문제를이렇게자연에서빌려온몇줄로올바로요약하였다.

고독한존재가주변의사람들과생각과감정을나눌수없을때그는고통스러워하고불안정해진다. 큰행복을경험할때인간은주변의사람들이그가존재하고, 사랑하며, 살고, 저항하고투쟁한다는것을알기원한다.

그는동시에자신의의지, 자신의적극적감정을표현할욕구를느낀다. 활동과노동은이미거의모든사람들의욕구가되었다. 이것이바로우리삶의맹목적조건때문에유익한노동을상실한모든남녀가자신들의능동적힘에맞는활동의장을찾기위해공허하고무의미한일과의무를고안해내는이유다. 유익한일과유익한직업에종사하고있음을스스로확신하기위해그들은무엇인가를, 즉그어떤이론, 종교, ‘사회적의무’를찾아낸다고한다. 그들에따르면, 춤을춘다면그것은단지남을돕기위한것이다. 그들



불구하고 인간본성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것을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낸다면 계속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은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훨씬 넓은 활동무대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애쓴다. 인류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존경받고 신화로 장식되는 이유다. 인류는 그들을 이상화하고, 동화, 노래,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인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축하하기, 선행, 사랑,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활동무대가 가족 혹은 친구들의 작은 범위에 한정된 사람들조차도 인류는 잊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가족 전통 속에서 존중된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의 가치에 맞는 참된 정의의 창조자들이 된다. 남은 모든 것은 단순한 평등 관계일 뿐이다. 이용기와 헌신이 없다면 인류는 자살한 수지타산의 진흙구덩이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미래의 도덕을 만들고, 그 도덕은 우리 아이들이 수지타산에 상관없이 - 에너지, 용기, 사랑은, 가장 생명적인 욕구가 감지되는 그곳에 이 모든 힘들을 투입할 때, 가장 잘 사용될 것이라는 사상에 따라 - 양육될 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용기, 이 헌신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동물들에게서 발견된다. 그것은 심지어 몰락의 시대를 사는 인간에게도 존재한다.

종교는 늘 이성과 독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보급시켰다. 종교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를 제외하면 어떤 시기에나 이용기와 헌신에 호소한 덕분이다.

이용기와 헌신의 유래를 설명해야 했을 때, 종교가, 공리주의자 그리고 여러 도덕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이용감한 헌신의 참된 유래를 발견한 영예는 그 어떤 신비주의적 힘도 아니고, 영국 학파의 공리주의자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한 그 어떤 돈 중심의 입장도 아니다. 그 영예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나키스트였던 젊은 철학자 기오의 것이다. 칸트의 철학이 실패하고, 실증주의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아나키스트 철학자들은 계속하여 진실의 길을 갔다. 기오는 말한다. “용기와 헌신은 자기 고유의 힘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충만하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명 그 자체다.” 인간은 실현할 수 있다는 내적인 자각은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향한 첫 걸음이다.

모든 인간은 삶속에서도 덕적 의무감을 알게 되고, 모든 신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그 감정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 의무감은 생명의 잉여이며, 이것은 사용되고 베풀어 지기를 모색한다. 이것은 동시에 자기 힘에 대한 자각이다.

축적된 힘은 이 힘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압박을 가한다. 행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의무를 갖는다. 악명 높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개념에

부인 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추위 떠는 사람과 배고픈 사람을 보는 것이 자신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을 피하고, 그 고통의 아픔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고 있다.

기오가 예로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은 친척을 살해한 자에게 복수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고, 겁쟁이란 생각에 괴로워하며 쇠약해진다. 복수를 실행했을 때에만 그의 건강은 회복된다. 자신을 학대하는 감정과 단절하고 다시 최고의 쾌락인 내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그는 자주 영웅적으로 행동한다.

원숭이 무리는 총탄에 쓰러진 동료 보면, 무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의 천막을 에워싸고 시체의 반환을 요구한다. 드디어 무리의 지휘자가 용감하게 천막으로 들어가 우선 사냥꾼을 위협하고, 다음에는 그에게 간청을 하여 시체를 돌려주게 만든다. 그러면 모든 무리가 소리를 지르며 시체를 숲으로 옮긴다. 이때 원숭이들은 동정심이란 본능에 따르며, 동정심은 개인적 안정에 대한 생각을 압도한다. 그들에게서 이 감정은 모든 다른 감정들보다 우위를 점한다. 자신들의 동료를 삶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원숭이들은 목숨을 건다. 이 감정은 매우 괴로운 것이어서, 가없는 동물들은 이 감정을 떨어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몹쓸 동물인 인간이 개미 총에 불을 놓으면, 수천 마리의 개미들은 개미 총으로 몰려가 수백 마리씩 죽어가며 유충을 구출한다. 이때 개미들도 자신의 후세를 보호하려는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만족을 얻기 위해 개미들은 부르주아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들여 기른 유충을 꺼내는 모험을 감수한다.

마지막으로 섬모충은 너무 강한 빛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온도를 찾아 이동한다. 식물은 태양을 향해 꽃의 방향을 바꾸고, 밤이 되면 나무는 잎을 늘어뜨린다. 이때 모든 생물은 고통을 피하려는 요구에 따라 움직이며, 쾌락을 추구한다. 즉 개미는 오스트레일리아인, 기독교의 순교자, 그리고 순교자·아나키스트와 똑같은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유기적 생명의 보편적 동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 생명의 정수가 포함되어 있다. 만족의 추구가 없다면, 생명 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 조직된 물질은 와해되고, 생명은 중단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행위의 방향이 어떠하든지, 인간은 행동에서 언제나 자기 본성의 명령에 복종한다. 가장 혐오스런 행위들이나, 공정한 행위들, 가장 매력적인 행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개체의 요구에 지배를 받는다. 다양하게 행위하지만, 개체는 행위의 결과로 쾌락에 상하는 가혹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가에 준하여 행동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소위 이기주의 이론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결론이 우리를 더욱 발전하게 만든단 말인가?

그렇다. 물론 발전하게 만든다. 우리들은 싸워진실을 찾고, 모든 편견들의 뿌리에 놓인 편견을 파괴하였다. 이 결론에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유물론 철학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결론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행위는 긍정하다고 서둘러 추론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 III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공통의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이성적인 즉의식적인 행위들이다. 무의식적 습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악덕이라고 일컫는 것처럼 선하다고 하는 행위들, 천박한 사기처럼 위대한 자기 희생, 혐오스런 행동처럼 호감을 주는 행위도, 모든 것은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유래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자연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창조되고, 모든 것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증거로 채택된 많은 사실들로부터 나온 짧은 결론인 앞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살펴 보았다.

여전히 종교 원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설명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설명에는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자리는 없다. 여기에서 영혼 불멸의 사상은 완전히 제외된다. 인간의 행위가 본성의 요구만 따르고, 인간이 소위 '의식하는 자동기계'라면, 불멸의 영혼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불멸, 이것은 기쁨은 적게 그러나 고통은 지나치게 많이 겪고, 저승에서의 보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이다. 편견에 따라 교육 받은 사람들, 과학이 자신들을 기만한다는 이유로 과학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이해석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지난 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인간 행위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원한다면 이것을 이기주의 이론이라고 하자) 들을 때면, 언제든지 앞에서 젊은 니힐리스트가 내뱉던 것과 같은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덕을 타도하라!” 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행동한다고 확신하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공정하며**, 선과 악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나 시계를 빼앗으려고 그를 의사시키는 것은 긍정하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동일하며, 인간 해방 운동을 이유로 교수형 당하는 순교자와 동료들을 등쳐먹은 사기꾼은, 쾌락을 추구한다는 저에서 동등하다고

나타나는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지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사기꾼을 경멸하게 한다. 우리에게 그런 성격이 있고,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즉요즘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기꾼을 포용하지도 않고, 악수를 나누지도 않을 것이다. 그의 공격적인 감정에 우리도 우리고유의, 그만큼이나 적극적이고 강한 감정으로 대항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등의 원리를 사회에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는 권리와 의무의 모든 것이다. 다시 이것은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sup>8</sup>

풍속 타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들은 자본주의, 종교, 재판, 정부이다.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은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평등의 원리 외에 어떤 다른 원리도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고 특별히 중심의 정의 개념에서로 잡혀 자신이 받은 것의 대가로 최소의 것도 주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회에 치명적일 것이다. 심지어 우리 관계 속에서 평등의 원리 자체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강하며 아름다운 어떤 것이 삶 속에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나타나야 할 어떤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의지와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위대한 영혼이,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 모든 지혜의 힘, 모든 활력, 모든 생명을 바친 영혼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사유, 감정 그리고 의지의 결실은 모든 가능한 형식으로 발현된다. 여기 열정적인 진리 탐구자가 있다. 그는 주변의 무지한 자들의 주장에 맞서, 진리와 정의라고 여기는 것을 찾기 위해 삶의 모든 기쁨을 거부한다. 여기 발명가가 있다. 그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명에 몰두하거나, 헌신적인 여인이 어린 아이에게 하듯 그에게 먹으라고 다 그쳐도 끼니를 잊고 빵에 손도 대지 않고 오늘을 살기도 한다. 여기 열정적인 혁명가가 있다. 그는 가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면 예술, 과학, 가정 생활의 행복이 주는 즐거움도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젊은이가 있다. 그는 온갖 무시무시한 전쟁 기록물에 등장하는 애국심의 전설을 믿고, 자원 병부대에 등록한다. 그는 눈속을 전진하고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결국에는 총탄에 맞아 죽는다. 마지막으로 무수히 많은 헌신의 예들이 있다. 이들은 덜 화려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거의 늘 인정받지 못한 채 남겨진다. 이러한 예들은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지배와 착취에도

<sup>8</sup> 이미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소리가 들린다. “살인자 그리고 아이들을 타락시킨 사람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간단한 답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의 내부에서 피에 대한 갈증이 명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도로 드문 현상이다. 이것은 치료하거나 기피해야 할 병자다. 방탕한 사람들에게 관해서, 우리들은 우선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런 남자들을 전혀 겁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자신은스스로의자유를거부하지말고, 다른사람들이자신을노예화하도록허용하지않으며, 이러저러한개인의강력하고반사회적인욕망에 대하여자기고유의, 아주치열한사회적감정으로대항하기만하면될것이다.”

우리의일상적삶과관련해서이미지금우리들은우리의동정심혹은반감에자유로운흐름을제공하여, 주어진순간마다이것을실천하고있다. 우리모두는도덕적힘을존중하고도덕적나약, 무기력, 비열을경멸한다. 우리가좋다고여기는사람들의사회적으로유익한행동에대해우리는매순간말, 시선, 미소로만족감을표시한다. 비열, 사기, 음모, 도덕적용기의부족이야기하는혐오감을매순간우리는시선과말로표현한다.

우리는상류사회의, 즉위선적‘교육’의영향을받았기때문에, 여전히기만적인겉모습아래이혐오감을숨기려애쓴다. 그러나그때에도우리는혐오감을완전히숨길수는없다. 기만적인겉모습은인간사이에평등이실현됨에따라결국사라질운명이기때문이다.

선과악에대한판단의차원을상당한수준으로높이고, 그수준을서로에게알리기위해서는이미이것으로도충분하다. 사회에성직자도재판관도더이상존재하지않게될때, 이것은훨씬더충분하게될것이다. 도덕적원리들이강제의성격을상실하고, 서로평등한사람들의자연스런관계로인식될때그것은더욱수월하게될것이다.

그리고이관계들이정립됨에따라, 사회에는높은차원의도덕개념이생긴다. 이제이것을분석하도록하자.

## VIII

지금까지의분석에서우리는평등의단순한원리들만을서술했다. 남이자신을대하는방식을전혀원하지않으면서도, 자신은남을그런방식으로대할권리를갖는사람들에게우리는저항했고저항할것을호소하였다. 남들이자신을속이고, 착취하고, 난폭하게대하며, 매수하기를원하지않으면서도, 타인과의관계에서자신은그런행동을하는자들에대해서우리는분노하였다.

그러한경우에도자유는전혀여러분을위협하지않을것이다.<sup>7</sup> 우리들은어떤이상으로도개인을왜곡하기를거부한다. 즉우리는 좋게혹은나쁘게생각되는사람에게공감과반감을공개적으로표현할권리만을갖는다. 어떤인물이자기동료들을기만할때, 이행동에는그의의지, 그의성격이

<sup>7</sup> 모든현대작가들중에서이사상을누구보다훌륭하게정식화한사람은입센(H. Ibsen)이다. 그는영국에서인정받게된것처럼곧프랑스에서도열렬하게인정받을것이다. 그는자신도모르는사이어나키스트처럼보이게된사람이다.

서둘러결론을내리는사람들이있다. 이들에대해서무슨말을할수있을까?

추가로그들은, 향기와악취도, 장미의향기와고무나무의악취도존재할수없으며, 좋은맛도나쁜맛도존재하지않으며, 아름다움도, 신체적추악함도, 우둔함도, 이성도존재하지않는다고말할수있다. 왜냐하면모든냄새는분자의움직임일뿐이고, 키니네의쓴맛과망고스틴의단맛도분자의진동이기때문이다. 또한미와추, 이상과우둔은유기체의세포내부에서일어나는화학적, 생리학적움직임의결과이기때문이다. 만일그렇다면그들이실없는소리를하는것이지만, 그래도그들은우자愚者의논리를따르고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그들이이렇게는말하지않는다해도, 우리는이것에대해서어떤결론을이끌어낼수있을까?

우리대답은매우간단하다. 1723년『꿀벌의우화』에서이문제를다루었던맨더빌, 1860-1870년대의러시아니힐리스트, 오늘날파리의아나키스트도그렇게판단한다. 왜냐하면분명하게이해하지못한채그들은자신들이받은기독교교육의편견에빠져있기때문이다. 스스로를아나키스트, 유물론자, 무신론자라고생각함에도불구하고그들은전적으로교부들혹은불교창시자들처럼판단한다.

실제로이선량한노인들은우리에게이렇게말했다. 육체에대한정신의승리라면그행동은 **좋다**. 그런반면, 육체가정신에대해승리한다면그행동은 **나쁘다**. 또한육체와정신중에서어느것도승리하지못한다면그행동은**공정하다**. 바로우리의젊은친구들은기독교의교부들과불교승려들의예를따랐던것이다. 즉 **이것이좋은행동과나쁜행동의평가를위한 유일한범주가되었다**. “동물들을보라. 그들에겐불멸의영혼이없다. 그들은단순히자연적육구의충족을위해행동한다. 바로 **이것이** 동물들의행위가좋은수도나쁠수도없는 **이유**다. 그들의행위는언제나공정하고, 이때문에동물들에게는천국도지옥도, 상도벌도준비되어있지않다.”

우리친구들은또다시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와석가모니의말을되풀이하고있다. 그들은이렇게말한다. “인간은동물이상이아니다. 인간의행위는단지자연적육구의충족만을추구하며, 결과적으로인간에게는좋은혹은나쁜행위가존재할수없다. 모든행위는공정하다.”

언제나이저주받을벌과보복에대한생각이이성을가로막는다. 행동이초자연적영감에서비롯되면좋은것이며, 이초자연적동기가부재하면공정한것이라고종교교육은설교한다. 종교교육의이러석은유산은영원하다. 오른쪽어깨에는천사가왼쪽어깨에는악마가있다는것은어느누구보다이편견을비웃은사람들에게도변함없이남아있다. “악마와천사를쫓아보내면, 난어떤행동이좋은지나쁜지말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내겐그것을평가할범주가없기때문입니다.”이말에서악마그리고천사와더불어성직자를느낄수있다. 유물론적지식으로쥬데기를덜칠했지만,

그윤기만으로성직자를감추기에는불충분하다. 더나쁜것은한편으로는채찍질을하고, 다른한편으로는상을수여하는재판관이살아있다는것이다. 심지어아나키즘의원리들도상과벌에대한생각을뿌리뽑기에는충분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

우리는성직자도, 재판관도원하지않는다. 우리는단순히이렇게말한다. “고무나무가악취를풍기고, 뱀이우리를물며, 거짓말쟁이가허풍을떨때, 식물도동물도인간도모두가자신들의본성의욕구에복종한다는것인가? 그렇다고하자! 나도나의본성에복종한다. 즉나는악취를내는식물을싫어하고, 독으로날죽이는동물을싫어하며, 동물보다더독살스런인간을싫어한다! 지금까지도존재를모르는악마와, 혹은뱀보다훨씬혐오하는재판관과도비교하지않는다. 하지만나는엄격히이에상응하게행동할것이다. 나와미움을공유하는모든사람과나, 우리모두는자신의본성의욕구에복종한다. 그래도남는문제는이성이그리고결국힘이어느편에있는가이다.”

이제우리들은이문제를다루려고한다. 분명한것은, 성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선과악을구별하기위한다른근거가없었다. 그러나동물의세계에는훨씬더확고한근거가존재했다는것이다. 곤충에서시작하여인간에이르는동물의세계는성경이나철학에묻지않고도선과악이존재한다는것을훌륭하게이해한다. 그이유는그들본성의욕구속에, 즉종의보존속에, 궁극적으로는개별적개체에게가능한존재의총계속에있다.

## IV

성서학자, 불교신자, 기독교인, 무슬림은신적인영감에의지하여선과악의경계를결정한다. 그들은, 즉야만인과문명인, 문맹인과학자, 타락한사람과선량하고정직한사람들모두는좋은행동혹은나쁜행동을언제나알고있다는것을잘이해했다. 특히나쁜게행동하면서도이사실에대해설명하지못할때, 그들은그행동에종교적순간이있다고보았다. 나를대로철학자·수학자들은의식에대하여, 그어떤신비적인명령에대하여우리에게말하지만, 그것은본질상이말을저말로바꾼것일뿐이다. 그러나사회를이루어사는동물들이‘선’과‘악’의개념을인간만큼이나잘파악한다는단순하고도놀라운사실을그들중누구도확인할수없었다. 더구나선과악에대한동물들의개념은인간의개념과완전히같다. 심지어곤충, 어류, 조류, 포유류와같은개별류類사이에서이에대한개념은동일하다.

18 세기의사상가들이훌륭하게이것을찾아냈다. 그러나그이후로이관찰은잊혀졌고, 이사실의중요성을강조해야할의무는우리의몫이되고말았다.

그러나그를살인에이르게한모든비열함을상기할때, 그가혐오스런책들에서퍼올린형상들혹은어리석은책에서보고들은관념들에쫓기며해매던어둠을상상할때, 우리의감정은둘로분열된다. 책이재판관의손에떨어졌다는것을우리가알게될때, 이이냉혹한정신병자들의손에떨어졌음을알게될때, 강도책에대한우리의증오는사라지고새로운방향을갖게될것이다. 재판관자신은책과같은사람들이한것보다열배가더많은인간(남성, 여성, 아이들) 의삶을냉혹하게유린하였으며자신들이부르주아의이익을지킨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죄없는사람들을유형지로보내기때문이다. 증오는위선적이고비겁한사회로, 사회의누구나인정하는대표자들에게로 옮겨간다. 한강도의모든비열함도법의이름으로자행된수세기동안의비열함앞에서는사라지고만다. 우리는법을증오하기시작한다.

이제우리감정은지속적으로분열된다. 우리는우리모두가많건적건, 자유의지든강요된것이든간에이사회공범이라는것을이해하게된다. 우리에게는더이상증오할권리가없다. 우리는사랑할권리는갖고있을까? 착취와노예제도위엔건설된사회에서인간적본성은타락한다.

그러나노예제도가사라짐에따라우리는조금씩자신의권리를회복할것이다. 다시우리는사랑하고증오할힘을획득할것이다. 방금앞에서제시한사례와같이아주복잡한경우에꼭그럴것이다.

우리는거짓과폭력그리고그와유사한것들을싫어한다. 그이유는우리가도덕법규에따라판단하기때문은아니다. 우리들은이법규를무시한다. 오히려그이유는인간에게평등은빈말이상의것이며, 거짓과폭력그리고그와유사한것들이인간의평등의감정을모욕하기때문이다. 그러한것들은사상과행동에서진실한아나키스트를특히분노하게만든다.

매우고양된, 즉도덕론자들이가르치기원하는모든것을포괄하는도덕성을창조하기위해, 이단순하고자연스러운그리고명백한원리하나만으로충분하다. 다만, 그것을늘삶에적용시킨다면말이다.

평등의원리는도덕론자들의모든가르침을요약한다. 그러나그안에그이상의것이여전히포함되어있다. 개인에대한존중이바로‘그것’이다. 평등의아나키즘적원리들을선언할때, 우리는도덕론자들이가졌던권리를, 즉자신들이옳다고생각하는이상을위하여개인을왜곡하는권리를거부한다. 우리는어느누구에게도그런권리를인정하지않으며, 우리자신을위해서도그것을원하지않는다.

우리는개인의제한없고완전한자유를인정한다. 개인을위해우리는모든자질의자유로운발전과존재의완전성을원한다. 우리는개인에게강요하기를원하지않고, 푸리에가종교적도덕에대해대립원리로제시한것으로돌아간다. 즉“인간에게절대적자유를주고, 그를왜곡하지말라. 이것은이미종교에의해서충분히자행되었다. 인간의욕망을두려워하지말라. 자유로운사회에서욕망은어떤위험의소지도제공하지않을것이다.

우리로말하자면, 우리는재판관과선고를거부한다. 우리는이것을두려워하지않는다. 기오가그런것처럼우리는도덕을승인하고강요하는모든시도마저도부정한다. “원하는것을하라, 원하는방식으로하라.”는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의사람들은어느정도계몽되는가에따라, 우리시대의고배로부터얼마나벗어나는가에따라, 언제나일정한방향으로, 즉사회의이익을위해행동하고행위할것이란것을우리는확신하기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의부모도그랬다는이유만으리기어다니는어린아가언젠가는두발로건게될것이라는것을우리가미리확신하는것처럼그렇다.

우리가유일하게할수있는것은충고를하는것이다. 충고를하면서도우리는다음과같은단서를붙인다. “이충고는경험과관찰을통해그것을따르는것이유리하다고네자신이확신하는한에만필요한것이다.”

젊은이가허리를구부정하게굽히고, 그렇게해서가슴과폐를누르는것을볼때, 우리는그들에게몸을곧게펴고머리를높이들어, 가슴에공기를흡뿔들여마시라고그에게충고한다. 왜냐하면이것이폐결핵예방의가장좋은수단이기때문이다. 그러나동시에그가폐의기능을알고, 스스로최상이라고생각하는자세를찾아낼수있도록, 우리는그에게생리학을가르친다.

바로이것이정말우리가도덕의영역에서할수있는모든것이다. 우리는충고하고거기에다음과같이덧붙일권리만을갖는다. “그것이좋다고생각하면그것을따라라.”

각자가좋다고생각하는대로행동할권리를부여하거나, 누가어떻게어떤반사회적행동을하든지그를처벌하는사회의권리를전적으로부정할때, 그때에도우리는좋다고여기는것을사랑하고, 나쁘다고여기는것을증오할능력을거부하지않는다. 증오할줄아는사람만이사랑할줄아는것처럼, 그렇게사랑하고증오한다. 우리는이권리를갖는다. 왜냐하면동물사회각각의도덕감정이유지되고발전되기위해서는이원리하나만으로도전적으로충분하기때문이다. 나아가인류의도덕적감정을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도충분한것처럼보인다.

우리는한가지만을요구한다. 그것은이두감정의자유로운발전을가로막는모든것, 우리의판단을거짓된길로이끄는모든것, 즉국가, 교회, 그리고재판관, 성직자, 정부, 착취자의착취를폐지하는것이다.

살인마잭 (Jack the ripper) 은가난하고불쌍한여성 10 명을차례로살해하였다. 이들은부르주아계급의여자중선량은 4 분의 3 보다더도덕적으로우월하다. 잭을볼때우리의첫반응은혐오감이다.

숙박비로 6 수를요구하는여성을난도질하는책과마추치게된다면, 우리는그자리에서그를총으로쏘아버릴것이다. 이때우리는총알이집소유자의머리를향하는것이오히려더적절할수도있다는것에대해서는생각하지않는다.

타의추종을불허하는개미연구자인포렐 (A.H.Forel) 은수많은관찰과사실을증거로, 배에꿀을가득채운개미와배가빈개미가만날때, 배고픈개미는즉각동료에게양식을요구한다는것을증명했다. 이작은곤충들사이에서배부른개미는배고픈동료들이실컷먹을수있도록자신의꿀을토해내는것을의무라고여긴다. 자기의꿀을받고나서개미집의다른개미에게양식을나눠주기를거부하는것이좋은일인지개미들에게물어보라. 개미들은몸짓으로당신에게대답할것이다. 그몸짓의의미는분명하다. 그들은그것을나쁘다고대답할것이다. 개미들은다른종의적들에게하는것보다훨씬더엄격하게그런이기주의자를대한다. 서로다른두종류의개미들이싸우는중에이런일이어난다면, 그들은이기주의자를벌하기위해전쟁을중단할것이다. 이것은실험을통해증명된사실이며, 이에대해서는의심할것이전혀없다.

당신의정원에살고있는참새들에게물어보라. 당신의창문에서빵조각몇개가정원에날아들었다는사실을알려서, 모든참새들이식사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은것인지그들에게물어보라. 스스로수고하는대신이웃동지에서다른참새가모은지푸라기를훑치는것이올바른행동인지. 참새들은그것이아주나쁜것이라고답하고, 모두함께도둑에게달려들어부리로조아댈것이다.

또영토내의다른들쥐들이지하곳간에접근하는것을막는것이좋은것인지를들쥐에게물어보라. 그것은아주나쁜것이라고대답하고, 그들은모든방법을동원하여구두쇠를벌할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원시종족인추크치인<sup>3</sup>에게종족중하나가주인이없는천막에서음식을가져가는것이좋은것인지물어보라. 이사람이스스로양식을구할수있다면그것은아주나쁜것이라고대답할것이다. 그러나지치고굶주리고있다면, 그는식량을발견한곳에서음식을가져갈권리를갖는다. 그러나그런경우에사냥을나갔던주인이돌아와부랑자가아니라동료가방문했었다는것을알수있도록, 그는천막에모자, 칼혹은매듭이있는끈조각을남겨두어야한다.

그런예방책은주인이천막근처에도둑이들었다고생각할때생길수도있는수고를덜어줄것이다.

수천가지유사한예를더들수있다. 인간과동물에게서선과악의개념은동일하다는것을보여주기위해서여러권의책을쓸수도있을것이다.

개미, 새, 들쥐, 추크치인은모두칸토드, 성스런교부들도, 심지어모세도읽지않았다. 그러나그들모두에게선과악에대한표상은동일하다. 이들개념의토대에놓여있는것에대해여러분이조금만생각해본다면, 개미, 들쥐, 기독교도혹은무신론자도덕주의자들모두는종의보존에이로운것을좋은것으로, 해로운것을나쁜것으로인정한다는사실이명백해질

<sup>3</sup> 역주 - 러시아연방에속한민족. 추코트자치구의원주민이다.

것이다. 벤담 혹은 밀이 주장하듯이 개체에 게 이롭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종 전체에 이로운가 아니면 불리한가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은 종교 혹은 신비주의적 인식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동물류의 자연적 욕구다. 종교 창시자, 철학자, 도덕론자들이 우리에게 신적이고 신비적인 본질에 대해 언급할 때, 그들은 개미, 참새들 각각이 그들의 작은 사회에서 실천하는 그것을 되새김질할 뿐이다. 즉 “이것이 사회를 위해 이로운 것인가? 그런 경우에 이것은 **좋다**.”

“이것이 사회에 해로운가? 그런 경우에 이것은 **나쁘다**.”

낮은 등급의 동물들에 한정된 개념은 점차 동물의 왕국에서 높은 단계로 확장된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미의 경우에 그것은 개미총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연대連帶의 관습과 공동거주의 모든 규칙들은 개미총의 개체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지닌 양식을 개미총의 다른 동료들에게 꼭 나누어 주어야 한다. 두 개미총이 한 가족으로 합치는 일은 재난이 두 집단을 위협할 경우에 한정된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 공원의 참새들도 서로 놀라운 연대를 보여준다. 하지만, 몽그 (Monge) 거리의 참새들이 영역을 침범할 때에는 격렬한 싸움을 감행한다. 추크치인은 다른 종족들을 자기 종족의 관습이 적용되지 않는 인간으로 여긴다. 심지어 그에게 물건을 파는 것도 허용된다. 언제나 판매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구매자에게서 훔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양쪽 중 누군가는 즉, 판매자 혹은 구매자든지 언제나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무엇인가를 판매한다는 것은 범죄다. 그들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고 **준다**.

자신과 파푸아인사이에 존재하는 얼핏 보아서 잘 파악되지 않는 밀접한 관계를 이해한 후 문명인은 자신의 연대원리를 모든 종의 인간에게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전파한다. 개념은 자라지만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른 한편,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은 문명화 수준과 지식의 확산에 따라 변한다.

이들 개념은 불변성을 갖지 않는다. 늙은 부모가 공동체에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매우 극단적일 때 원시인은 그들을 먹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즉 종족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을 수 있다. 어머니들이 세 살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충분히 양육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시인은 가족 당 둘 혹은 세 명만 남기고 나머지 신생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좋다고, 즉 공동체를 위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났다. 존재수단들이 석기 시대의 그것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시가 죽은 늙은 부모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반쯤 굶주리며 살다가 곧 늙은 부모도 어린 식구들도 먹여살릴 수 없는 상태에 처할 것인가의 두 가지 악중에서 선택해야 했다. 문명인은 그들과 비교하여 다른 조건들 속에 존재한다. 상상만으로도 그때의 모습을 그려 내기가 어렵겠지만 당시의 조건에서 반야만인들의 판단이 충분히 옳았다

마다 일어난다. 무의식적 삶에 대한 표상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수행하는 큰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습관을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타인에 대한 관계의 4 분의 3 은 무의식적 행위로 구성된다. 누구나 말하고, 미소 짓고, 찌푸리고, 고민하고 혹은 논쟁할 때 도차분하게 행동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인간 혹은 인간이 전의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습관 덕분에,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고도 모든 행위를 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주변 세계와 관련된 우리의 행동은 습관으로 변한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악마가 그를 악행으로 이끌었다고 믿고, 지옥의 고통 혹은 천국의 지복에 의존해서 만악행을 자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좋은 습관을 습득한 사람은 선량한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완전해질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모든 사회적 동물에게서 단순한 **습관**이 되면, 인간은 보통 자신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골몰하지 않는다.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도 좋게 혹은 나쁘게 행동한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거나 무분별한 욕망이 밀려드는 예외적인 경우에 만 인간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그의 모든 뇌세포들은 서로 간의 싸움에 돌입한다. 이러한 뇌는 극도로 복잡한 기관으로, 그것의 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그때 나는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는 사람들이 그 자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대접해 주기를 그 자신이 바라고 있는가를 고민한다. 그는 상대방의 장점 혹은 이익을 침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그가 상대방과 자신을 성공적으로 동일시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의 결정은 더욱 더 도덕적이 될 것이다. 혹은 어떤 친구가 개입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해. 네가 방금 그를 대접한 것처럼, 그가 너를 그렇게 대접하기를 너는 허락하겠니?” 이것으로 완전히 충분하다.

즉, 의심이 생길 때만 평등의 원리에 의존해야 한다. 백중아 혼아 혼번의 경우에 우리는 습관 덕분에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 우리는 절대로 **규정**하지 않고, 인간과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묘사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거에 교회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옥의 고통으로 위협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두 잘 알고 있다. 교회는 그들을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재판관은 감옥, 채찍, 교수형으로 위협한다. 이 모든 것은 사회성의 원리를 근거로 진행된다. 재판관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사회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관은 사회를 타락시킨다. 재판관이 지구에서 성직자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온갖 종류의 권위자들은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는 용감한 여인과 함께 그를 간호했다. 두 시간 후 의사 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다. 그에게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그는 스트리크 닌을 요구하였다. 그는 다시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무섭게 경련하면서 죽어갔다. 우리 연구자들이 확인한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더 많이 제시할 수 있다! 고결한 인간은 남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바로 이것이 독사 혹은 폭군을 죽일 때,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의식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동의는 행동의 정당성을 보증한다.

페롭스카야와 그의 동료들은 러시아 황제를 암살하였다. 유혈을 싫어하고, 농노를 해방시킨 황제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 행위가 이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여전히 인류의 4분의 3은 그 행위가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사람들은, 페롭스카야와 그의 동료들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를 준다고 해도 폭군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 사건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행동에는 젊은 이들의 무모함, 궁정 혁명 혹은 권력 찬탈 시도가 아니라 폭정에 대한 증오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페롭스카야와 동료들은 자기 희생과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루이자 미셀에 대해 “그녀는 빼앗을 권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은 살인할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말한다. 혹은 헤르손 재정국에서 백만 십이 백만을 훔치면서도, 자신들은 마른 빵을 먹었던 테러리스트들을 상기할 때, 사람들은 “그들은 도둑질할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다. 이때에도 장전된 총을 들고 금고를 지키던 보초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인류는 **이 권리를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 바리케이드 혹은 총성이 난무하는 사거리에서 폭력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여론에 심오한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이 권리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로운 행위처럼 이로운 행위도 사상의 진보를 위해 아무런 의미 없는 무모한 행위가 될 뿐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폭력의 위치 이동, 단순히 한 착취자를 다른 착취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VII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명료하게 이해하고 행하는) 의식적인 행동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의식적 삶과 나란히 훨씬 더 광범위한 무의식적 삶이 흘러간다. 이 무의식적 삶은 전에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우리는 지난 밤 단추가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단추를 채우려 하거나, 자신이 다른 장소에 옮겨 놓고 도둑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이런 일은 아침

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원주민들이 부모와 적들을 먹지 않게 된 이후로,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이 괴혈병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sup>4</sup>

종의 보존을 위해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변하고, 판단도 변한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동물 왕국의 모든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개미, 새, 들쥐, 인간 모두는 한 점에서 만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말한다. “이웃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동물 세계와 훨씬 더 높은 체제의 관습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온 도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덧붙인다. “이것은 충고 이상의 것이 아님을 잘 기억하라.” 그러나 이 충고는 인간을 포함한 사회적 동물에 대한 오랜 연구의 열매이다. 이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다. 이 원리가 없다면 사회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민족도 그들이 싸워야 하는 자연적 장애물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의 세계와 인간 사회의 관습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이 토록 단 순한 원리가 현실 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이 원리는 그것에 추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어떻게 그 원리는 서서히 습관으로 변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 V

인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 발전 단계에 있건, 반대로 편견과 이기적 이해 때문에 생각이 안개에 덮여 있건, **인간은 대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이로운 것을 좋게 여기고, 사회에 해로운 것을 나쁘게 여긴다.**

이 추론은 감정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료하다. 그러나 그런 추론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예를 들어 류類로서의 인간에 대해 사유할 생각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수백만의 인간이 있다고 하자. 류類로서의 인간에 대한 그들의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씨족에 제한된다. 민족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드물고, 인류로 제한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 그들이 협소한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인류에게 이로운 것을 선으로 여기는 것, 또 그들이 자신의 씨족 내에서 연대감을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sup>4</sup> 미클루호 - 미클라이가 이것을 확인하였고, 알려진 것처럼 그의 관찰은 신뢰할 수 있다.



모든시대의사상가들은오랫동안이문제를연구하였고, 지금도여전히연구하고있으며, 매년이주제에대해수많은책들이집필되고있다.

이제이문제에대한우리의관점을피력하도록하겠다. 그리고설명을달리하는경우에도사실자체는논쟁의여지가없으며, 우리의해설이신빙성없고불완전한경우에도사실자체는그로부터도출된모든결론과함께현존한다는것을 짧게 언급한다.

태양의주변을돌고있는행성의기원에대해우리는정확하게알수없다. 그럼에도행성들은계속회전하고, 그들중하나가우리를공간속으로이끈다.

종교가이문제에대해설명한것을우리는이미말했다. 교부들에따르면, 다만신이개념을불어넣어주었기때문에인간은선과악을구별한다. 이롭거나해로운것은인간이상관할바가아니며, 인간에게는창조주의생각을따르는일만남았다. 야만인의공포와무지의결과인이런설명에머물지말고, 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다른사람들은(흙스와같이) 법에서설명을찾으려고하였다. 그들에따르면, 법은인간이 정의와불의, 선과악의감정을발전시킬수있게한다.

우리의독자들은이설명에대해적합한평가를내릴수있다. 소수의착취자들에대항하여사람들은봉기를일으킨다. 그러나착취자들에게유리하도록개념들을주입시키기위하여, 법은인간의사회적본능을단순히이용한다. 독자들은이사실을잘알고있다. 법은정의의발전을촉진하는데신에정의감을왜곡하였다. 계속해서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공리주의자들에대한심의에만머물지는않도록하자. 인간은개인적인이익때문에도덕적으로행동한다고그들은주장하고, 인류와의연대감정을표명한다. 이감정의기원을어떻게설명하는가와상관없이, 연대감은늘존재하고있다. 그들의주장에는진실의일부가담겨져있다. 그러나이것도아직은진실과는거리가멀다. 계속해서다음으로넘어가도록하자.

부분적임에도불구하고도덕감정의원천에대한규명은유일하게 18세기사상가들의공적이다.

아담스미스(Adam Smith)는자신의탁월한저서<sup>5</sup>에서도덕감정의참다운기원을상당히해명하였다. 그는종교혹은신비주의적감정에서그것을찾지않고, 동정심이란단순한요소에서찾았다. 그러나성직자들은이저서에대해깊이침묵하고있으며, 무신론적사상가대부분도이저서를실제로잘모르고있다.

예를들어, 어른이아이를때리는것을보았다고하자. 당신들은구타가아이에게고통을야기함을알고있다. 상상만으로여러분은아이에게가해

<sup>5</sup> 역주 - 아담스미스를도덕철학자로유명하게만든『도덕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이다.

을향해대포를발사할수있다고하는가? 당신은무슨권리로착취자의소유물을박탈할수있다고하는가? 무슨권리로폭군뿐만아니라심지어독사를죽일수있다고하는가?”

무슨권리? 법에서차용한이이상스런용어를당신은어떻게이해하고있는가? 당신이행동을했을때당신은그행동이좋다는의식이당신안에존재하는가에대한문제에깊이생각하는가? 아니면당신은당신이존경하는사람들이그행위를좋게여기는가에대한문제에깊이생각하는가? 당신이이문제에관심을갖는다면, 그경우우리의답변은매우간단하다.

그렇다. 물론우리는힘에의존할권리를갖는다. 왜냐하면이경우, 전혀해를끼치지않는통킹이나줄루족을우리가공격한다면, 독사를죽이듯이우리를죽이기를우리자신이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즉“우리가언젠가공격자의편에서계된다면우리를죽여라.”라고우리는자식들에게, 동료들에게말한다. 우리가언젠가자신의원칙을배반하고, 동포를착취하기위해상속권을갖는다면그것이하늘에서떨어진것이라해도그것은우리자신들을착취하라고요구하는것이다.

또한모든고결한인간은자신이독사로변하는경우에자신을죽여주기를미리요구한다. 그리고자신이왕좌에서밀려난폭군의자리에서계되는경우에칼로심장을찌를것을요구한다.

아내와아이를가진사람백명중 90 명은자신에게광기(행동에대한의식의통제력상실) 가나타날것을확신하게되면, 사랑하는사람들에게해를끼칠수있다는두려움때문에자살을택할것이다. 고결한사람들은사랑하는사람들에게위험이된다는것을느끼는순간이위험이현실화되기전에죽을준비가되어있다.

언젠가이르쿠츠크에서미친개가의사와사진사를물었다. 사진사는달귀진쇠로상처를지졌다. 의사는부식성약품을바르는것으로그쳤다. 그는젊고, 착하고, 활력이넘쳤다. 그는최근에강제노동에서돌아왔다. 민중을위해희생적으로봉사했다는이유로정부가그를유형에처했던것이다. 그는많은지식과지혜를갖고치유의기적을이루어냈다. 환자들은그를송배하였다. 6 주후그는물린손가락이부어오르는것을발견했다. 의사가실수할리없었다. 그것은광견병의징후였다. 그는자신처럼의사이고추방객인동료에게달려갔다. “즉시스트리크닌을<sup>6</sup> 줘, 부탁이야, 제발. 이손을봐. 이게무엇을의미하는지알지? 몇시간지나면, 아니그보다일찍광견병발작이일어날거야. 그러면난나자신과친구들을몰어뜯으려고할거야. 시간이없어. 빨리스트리크닌을. 난죽어야해.”

독사로변할것을느끼고그는자신을죽여줄것을요구하였다. 동료는망설였다. 그는광견병을치료하기위해모든방법을시도해보고싶었다.

<sup>6</sup> 역주 - 스트리크닌(strychnine), 마전의씨에함유되어있는알칼로이드. 백색결정으로매우유독하다.



지를음식으로사용하지않으며, 샤리아(꾸란을바탕으로만들어진이슬람종교적사회관습법)가3년동안경작되지않은모든토지는공동체소유가된다고규정했다고해서토지에대한공산주의적소유를부정하는것이합리적이지않은것과같다.

게다가‘남에게대접받기원하는대로너희도남을대접하라’고명령하는원리가아나키즘의토대에놓인평등의원리와본질상드란말인가?아나키즘의원리를삶속에실천하지않으면서어떻게자신을아나키스트라고생각할수있단말인가?

우리는우리를지배하는권력을원하지않는다. 이렇게해서우리는, 우리자신도아무도지배하기를원하지않는다고선언한다. 남들이기만하는것을원하지않고, 우리에게늘하나의진실만을말하기를원한다. 그리고이렇게해서우리는, 아무도기만하기를원하지않고언제나하나의진실만을그리고나아가모든진실만을말할의무를스스로진다고선언한다. 우리는노동의결과를우리에게서빼앗아가는것을원하지않는다. 그리고이렇게해서우리는타인의노동의산물에대한불가침성을존중한다고선언한다.

진실로, 어떤근거로우리가자신에대한일정한태도를요구하면서, 남에게완전히다른태도를보일권리를주장할수있겠는가?

우리는그어떤우연에따라하고싶은대로남을다룰권리를가진키르키즈인들의‘흰뺨’(특권층)가되어가고있는것이아닌가? 가장원초적인평등의감정은이런생각에대해크게항의한다. 상호관계에서의평등과이로부터나오는연대성, 이들은존재를위한투쟁에서동물세계의가장강력한무기이다. 평등, 이것은정의다. 우리는아나키스트임을자임하며, 남에게대접받기원하는것과다르게남을대접하지않겠다고미리선언한다. 우리는어느누구에게도분명히우리자신들이공감하지않은방향으로폭력, 간교와술책을행사할가능성을주는불평등을용납하지않을것이다. 정의와동의어인평등은아나키즘의본질을이룬다. 잘민네이웃을기만할권리를갖는다고하는‘흰뺨’는사라져야한다. 우리는그것을원하지않으며, 기회가되면근절시킬것이다. 우리는법, 종교, 권력으로나타나는빃간삼위일체에게만전쟁을선포하지는않는다. 우리는수많은거짓, 간교, 착취, 음란과타락, 한마디로모든사람의마음을채우고있는불평등에대하여전쟁을선포한다. 우리들은그러한모든행동, 그러한모든사유에대하여전쟁을선언한다. 신민臣民, 기만당한사람, 착취당한사람, 매춘부등은무엇보다도우리의정의감을부끄럽게만든다. 더이상우리는매춘부도, 착취당한사람도, 기만당한사람도, 충성스런신민도원하지않는다.

이미여러번반복되었던것처럼, 아마사람들은우리에게이렇게말할것이다. “남에게대접받기원하는대로, 언제나남과의관계에서당신들도대접해야한다고전제한다면, 당신은무슨권리로특정한상황에서물리력을사용할수있는가? 당신은무슨권리로나라를침범한문명인혹은야만인

진악을생생하게느낄수있다. 혹은아이의울음, 이작은얼굴에나타난고통의표현은여러분에게악을웅변한다. 겁쟁이가아니라면여러분은가해자에게즉시달려들어이집승에게서아이를빼앗을것이다.

모든도덕감정을설명하기위해이하나의사례만으로도충분하다. 여러분의상상력이풍부하게될수록여러분은고통을강요당한아이의감정을더잘떠올릴수있으며, 여러분의도덕감정은더강력하고더섬세하게될것이다. 다른사람의입장에서생각하는능력이발전할수록그에게모욕감을일으키는악을, 그리고아이를피해자로만드는불의를당신은더생생하게느끼고, 악, 모욕, 혹은불의에저항하는성향은더욱강해진다. 환경이나주변사람들의영향을받아, 혹은강력한상상력과사유덕분에여러분은상상과사유가이끄는방향으로행동하는데더욱익숙해질것이다. 그와더불어여러분안의도덕감정도더욱더성장하고강해지며, 더욱많은습관의힘을획득할수있을것이다.

바로이것이아담스미스가많은양의사례를제시하면서발전시킨사상의내용이다. 이책을쓸무렵그는젊었지만, 그것은그가나이들어집필한‘정치경제학’보다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가치를갖는다. 모든종교적편견에서자유로운아담스미스는인간본성의물리적현상에서도덕성의설명을찾으려하였다. 바로이것이한세기동안교회와세속의종교적편견이이책을금지한이유이다.

아담스미스는동정심의요소가인간에게서처럼동물들에게도존재한다는사실을이해하지못했다. 이것이그의유일한오류였다.

다윈(Darwin)류의통속적인풍속해설자들은멜서스(T.R.Malthus)에서차용한것이아니면모든것을부정한다. 그러므로그들이나쁘게받아들이지않기를바란다. 그러나연대감은사회를이루며사는모든동물들의지배적인특징이다. 실제로, 독수리는참새를먹이로삼고, 늑대는들쥐를공격한다. 그러나독수리도늑대도사냥을할때는서로돕고, 참새와들쥐는서로연대하여육식동물들을방어한다. 얼빠진것들만이이들의발톱에걸려든다. 어떤동물의사회에서도연대는자연의법칙이며, 악명높은‘존재를위한투쟁’보다도자본주의자들이결국우리를멍청하게만들기위해한목소리로찬미하는덕행보다도훨씬중요하다.

우리는동물의세계를연구하고, 각각의생물체가불리한환경조건과적들에대항하여수행하는존재를위한투쟁을규명하려한다. 이때우리는일정한동물사회에서평등과연대의원리들이발전하고그원리들이변하여그들의습관이될수록, 그사회는더큰생존의기회를갖게되며, 불리한환경과적과의싸움에서승자가될기회가더욱증가한다는것을확인하게된다. 사회의각구성원이다른구성원들과의연대를더욱생생하게의식할수록, 사회의모든구성원들속에승리와진보의주요결정요소인두가지특징이더욱더발전한다. 하나는용기이고, 다른하나는자유로운개인적주

도권이다. 반대로 일정한 동물 사회 혹은 작은 집단에서 연대감이 줄어들수록 다른 두 결정 요소의 강도도 낮아지고,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때해체 직전에 이른 사회는 적에의 해방과 될 수밖에 없다. 연대감의 감소는 절대적 풍요에서 비롯된다.

상호 신뢰가 없다면 투쟁은 불가능하게 되고, 용기, 주도권, 연대가 없다면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패배는 불가피하다.

결국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동물과 인간의 세계에서 연대의 법칙은 진보의 법칙이며, 용기와 이로부터 나오는 개인적 주도권처럼 상호 부조의 원리는 이원리들을 적용하는 법을 배운 종에게 승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이것을 많은 예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였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질문을 위해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함을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에 나타난 동물의 첫배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연대감이 수백만 세기 동안 활동하고 있음을 이제 상상해 보라. 이 감정은 조금씩 습관으로 변하고, 유전을 통해 가장 단순한 미생 조직으로부터 곤충, 조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생물로 전달되었음을 상상해 보라.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은 도덕 감정의 기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먹이와 그것을 소화하는 소화 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도덕 감정도 동물에게 **필수적이다**.

더 낮은 단계의 동물 세계는 살펴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미생 조직들의 군체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직에 대해 언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연대감에도 도덕 감정의 기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광범위한 질문을 몇 쪽에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 감정의 기원에는 신비적인 것도 감상적인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개체와 류類의 연대감이 없었다면 동물 세계는 발전할 수도 완성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물속을 헤엄치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원형질 조각은 지금 지구에서 가장 완전한 생물체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초의 세포 덩어리가 투쟁에서 연합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VI

자, 우리는 이익을 쫓는 부르주아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이성적 연구자로서 동물의 사회를 관찰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관찰에서 “비슷한 경우에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너희도 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대접하라.”는 원리는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됨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 세계의 발전 혹은 진화를 면밀하게 연구한다면, 여러분도 동물학자 케슬레르와 경제학자 체르니셰프스키처럼 동물 세계의 발전에서 ‘연대성’

의원리가 어떤 적응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할 것이다. 연대성과 달리 적응력은 개체들 사이에서 개별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사실은 연대의 원리가 여전히 인간 사회에서도 더 자주 실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발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유인원 사회는 연대성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탁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인간은 여전히 길을 가고 있다. 이것만이 적대적 환경의 모든 불리한 조건들로부터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종을 보존하고 지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도석기 시대의 발전 수준에 있는 원시 사회를 연구하면, 이들 작은 사회에서 연대성의 원리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관계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도 연대감과 그것의 실천적 적용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이다. 일정 기간이 원리를 배척했던 폭정, 노예제도, 착취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에조차 도의 원리는 언제나 다수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 속에 깊게 뿌리 내렸다. 그 결과 불만족스런 체제에 대한 봉기와 혁명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없었다면 사회는 틀림없이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들에게서 이 감정은 습득된 습관의 형태로 남아 있고, 남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때에도 늘 현존하는 원리이다. 전체적으로 우리도 동물 세계의 진화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진화는 아주 오래, 수억 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의 도덕심은 후각이나 촉각처럼 전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다.

법과 종교도 이원리를 설교한다. 그러나 전자는 자신의 상품을, 즉 승리자, 착취자, 사제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것을 기만적으로 사용한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연대성의 정당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성의 원리 없이는 어떻게 이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종교도 법도 이원리로 위장하였다. 마치 권력이 강자와 대립하고 있는 약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처럼 말이다.

종교, 법 그리고 권력을 버리고 난 후에, 인류는 빼앗겼던 도덕 원리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곡된 도덕 원리를 비판함으로써, 도덕 원리를 왜곡으로부터 정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성직자, 재판관 그리고 지배자는 왜곡으로도덕 원리를 병들게 만들었고, 여전히 병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법이 악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꾸란이 매일 청결의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씻지 않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금했다고 해서 섬모충이 있는 돼